

# 광주지방경찰청 부실·능장 수사 도마 오를 듯

## 23일 국정감사 이슈는

- ☑ '의붓딸 살해'·'기아차 채용 사기' 부실 수사
- ☑ 금품수수·음주운전·코로나 술자리 '경찰 비위'
- ☑ 마약 사범·보이스피싱 급증...치안력 부재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실한 수사와 미흡한 초동 대처로 인해 발생한 사건 등이 집중 거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 수장이 허술한 대처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인 의붓딸 살해사건을 비롯, 피해자만 수백명인 기아차 채용 사기 사건에 대한 미흡한 수사 과정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들은 접대·뇌물·음주운전 등 비위를 저지른 경찰로 인한 국민 신뢰 저하 문제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력 질타 이어질 듯=당장, 국회의원들은 지난 8일 경찰청장이 고개를 숙여 사과한 '의붓딸 살해 사건'과 관련,

광주청의 안일하고 허술한 수사 행태를 적극 따지겠다고 버리고 있다. 의붓딸 살인 사건은 지난해 4월,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중학생 A양이 친모와 의부에게 보복살해 당한 사건. 경찰은 A양의 신변보호 요청에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고 A양은 결국 숨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당시 경찰청 국감에서 "현장 경찰관이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게 자기 임무에 충실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사과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성북구갑)의

원이 관련 질의를 준비중이며 구체적인 자료 요청도 해놓은 상태다.

김 의원은 "초동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점을 부각해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취업사기 사건도 관련 피해자들이 검찰의 재수사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압수수색을 통한 관련 자료 확보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부실하게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검찰의 재수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의원들은 기아차 취업사기 피해자 현황, 수사 진행 경과, 공소장 제출 등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여성 사채업자 사기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고소에도 4개월이 되도록 피고소인 조사에 나서지 않는 등 미온적인 수사 행태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경찰 비위 행위 질타도=광주 경찰청의 비위 문제도 거론될 수밖에 없다.

정의당 이은주(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광주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경찰관만 35명에 이른다. 매년 광주지역 경찰 7명이 비위 행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올해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가 연례행사처럼 터져나왔고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현금 500만원을 받아 입건되는 가 하면, 경무관급 고위간부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유지되던 시기에 부적절한 술자리를 갖고 직위해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급증하고 있는 마약 사범·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치안력 부재 문제도 핵심 이슈다.

광주에 들어 올 들어 8월까지 검거된 인터넷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23명)은 지난해보다 8배 가량 늘어나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2018년 205명에서 2019년 358명으로 급증하는 등 증가세인 점도 국회의원들이 들여다보는 주요 이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5·18 때 신군부 명령 거부 故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

### '올해의 경찰 영웅'에

경찰의 날(10월 21일)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유혈진압 명령을 거부한 故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이 '올해의 경찰 영웅'에 선정됐다.

21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는 성명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5·18진상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부당한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해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지시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이 총경의 숭고한 뜻을 기린다"며 "더불어 故안병하 전 전남경찰국장 등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통해 재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규 전 서장은 1980년 5월 21·22일 시위대 120여 명이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왔는데도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위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면되고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3개월간 구금·고문당한 뒤 군사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고문으로 건강이 악화해 5년간 투병하다가 1985년 암으로 사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완경기 여성 건강관리 지원

### 광주 북구 온라인 프로 운영

광주시 북구가 지역내 완경기 여성의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

21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완경기 여성들을 위해 '뷰티를 4050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북구는 올해 7월 기준 북구의 전체 인구 중 50.3%가 여성이며, 40세부터 59세까지 여성의 비율은 전국 16.2%보다 높은 16.5%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월까지 여성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1시간씩 진행되며 23일 '모듬정원 만들기'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스트레스 관리법 ▲건강가득 요리교실(2회) ▲바르게 걷기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 총 6회에 걸쳐 운영된다.

또 북구는 비대면 건강증진 홍보관을 마련해 식생활, 심뇌혈관, 만성질환 등 중년이 알아야 할 건강정보를 안내하고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혐의 없음 처분 '수업 중 노출영화 상영 교사' 교육청은 중징계 요구...서부교육장은 '거부'

성교육수업 중 신체 노출 장면이 담긴 프랑스 단편영화를 상영해 수사까지 받았던 중학교 도덕 담당 교사 배이상현씨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배이 교사는 지난해 한 차례 직위해제를 당했다가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직위를 회복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과 수업배제 불응, SNS를 통한 신고 학생들에 대한 가해 등

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 하달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교사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학생지도와 교육활동 등의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의를 통해 '직위해제'를 결

정했다가, 교육청의 직권으로 다시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교육지원청은 처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73조의 3) 상 직위해제에 관한 조항이 강행 규정이 아닌 만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해당 교육청은 "직위해제의 근본 목적

은 피해 학생들과 교사를 분리하는 것이다. 배이 교사는 이미 다른 학교로 옮겨 근무하고 있고, 배이 교사에게 중징계가 요구된 상황인 만큼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굳이 직위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배이 교사는 관할 교육지

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1차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재판은 오는 11월1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서부교육청의 직위해제 취소와는 별도로 배이 교사가 SNS 등에서 신고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했고, 수업 배제에 불응하고 학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점이 있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코로나19'와 노인 건강 상관관계는?

### 전남대 노인의학센터 24일 국제심포지엄

전남대학교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전남대 노인의학센터는 오는 24일 광주 시 학동 의과대학 덕재홀에서 노화 관련 대학·병원·학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제 14차 국제노화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면역과 노화'를 주제로 노년기 면역력 증진을 위한 의학적 접근과 영양·간호·사회적 접근이 논의된다.

미국 NIH의 루이지 페루치 박사와 일본 오사카대학 야수유키 곤도 교수가 노년기 면역과 성공적 노화에 대해 원격 강연한다. 또 국내 전문가들이 영양과 신체 활동을 통해 효율적으로 면역기능을 향상시키고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고령사회,

영양과 노화는 물론, 노인들의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과 백신 등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내용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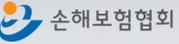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등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박상철 전남대 석좌교수가 대회장을 맡고, 윤경철 센터장이 조직위원장을, 한재영 전남대 교수(재래의학과)가 사무총장을 각각 맡아 방역수칙에 따라 진행된다.

국제노화심포지엄은 노화에 의한 보건·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광주·전남 지역의 교수, 연구자, 의료인들이 주축이 돼 매년 열리는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로 노인의학에서부터, 노년학, 노인복지, 간호, 사회정책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돼 왔다. /채희종 기자 chae@



자전거로 떠나는 수학여행

21일 오전 광주 서구 극락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영산강 자전거길을 이용해 가을 수학여행을 떠나고 있다. 이날 학생들은 코로나 19 감염증 방지 차원에서 타 지역으로 떠나는 여행 대신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출발, 약 16km 떨어진 남구 송촌보까지 이동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